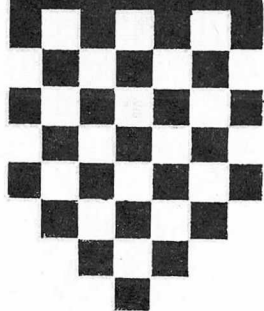


특집



오제스키병 발생동향과

양돈장의 피해방지 대책

1. 머리말

오제스키병은 일명 가성광견병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돼지의 경우 자돈의 높은 폐사율, 임신돈의 유사산, 비육돈의 성장저하를 유발하여 양돈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제스키병은 1987년부터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이 질병에 의한 손실이 빈번히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오제스키병 발생동향을 분석하고 질병의 확산가능성에 대한 방역요령을 점검하여 양돈장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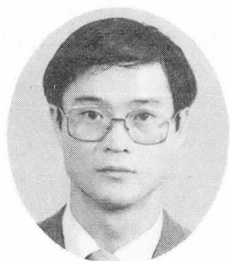
2. 오제스키병의 농장내 감염실태

오제스키병의 감염보고는 1987년 처음발생이 확인되었다.

이후 1988년, 1989년간 5000두 이상의 감염이 발생되었으며 1990년 이후 감소되었다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질병의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1987, 1988년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였으나 1989년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지역 등 전국적인 발생이 확인되었다.(표 1, 그림 1 참조)

실제 1987년에서 1989년을 걸쳐 1990년까지의 지역별 발생은 양돈산업이 밀집된 경기, 충남지역에서 광범위한 발생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91년 및 1993년에는 공식적인 발생보고가 없었으며 1992년에 2건 1994년에 14건으로 경기 및 충남의 양돈밀집지역내 간헐적인 발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1월부터 3월까지 농가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1991년에서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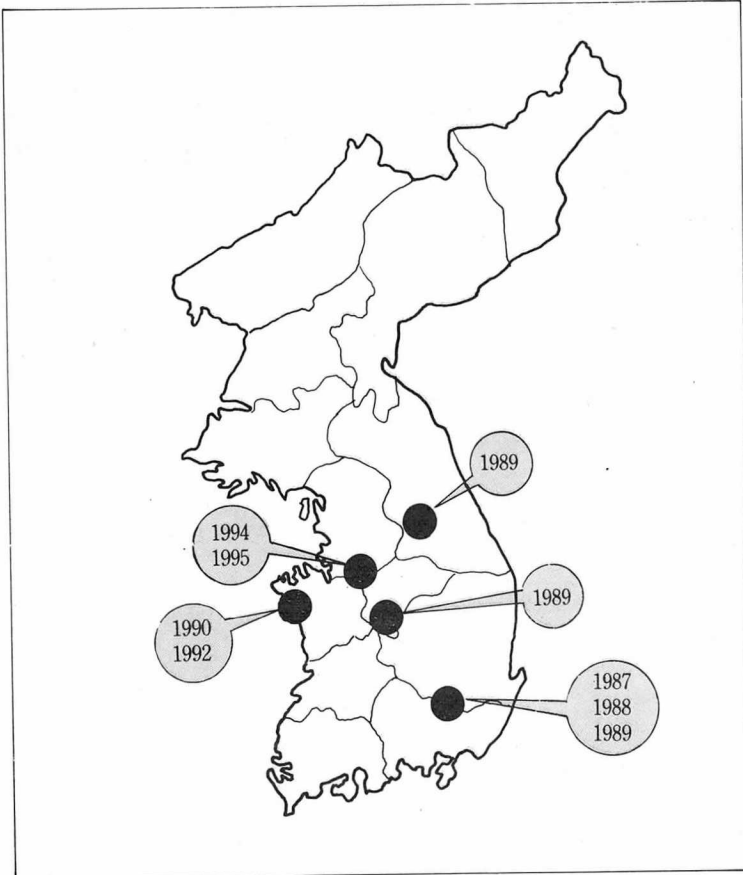


권창희 연구관
(수의과학연구소)

〈표 1〉 돼지오제스키병 발생현황(농림수산부 공식집계)

구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1-3
경기		110	380	4,396					309 (8)	288 (3)
강원				69						
충북				51						
충남					190		2 (1)		173 (6)	174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61	1	99						
제주										
계		471	381	4,615	190	-	2 (1)	-	482 (14)	462 (4)

(단위: 두)



〈그림 1〉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지역(1987~1995. 3 현재)

년에 걸친 발생빈도를 상회할 것 같은 어두운 예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발생이 때로는 간헐적으로 또 때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의 원인을 분석하여보자.

3. 돼지오제스키병의 특징

돼지오제스키병은 자돈에 감염시 90% 이상의 상당히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므로 질병발생시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돈에 감염시에는 60% 이상 불현성 감염을 일으키며 특히 번식돈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질병의 발병현상은 병인체인 오제스키병 바이러스가 어린 자돈에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신경조직에 침투하게 됨에 따라 폐사율이 높게 되는 반면 성돈의 경우 약한 재채기나, 호흡곤란, 식욕저하나 변비증상을 나타내게되며 대부분 2~3일후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임신돈의 경우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태아의 유산, 사산을 유발하게 되어 눈에 띄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게 된다.

4. 돼지오제스키병의 농장내 전파 원인

돼지 오제스키병이 농장에 침투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 몇가지만 나열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돈군내 질병전파의 원인체로서 가장 중요한 전파매체는 불현성 웅돈의 도입이나 번식돈의 도입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웅돈이나 번식모돈들이 다른 돼지들, 예를들어 비육돈과 같은 돼지의 경우보다도 환경적으로 바이러스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결과로서 추정된다. 그러므로 농장내 웅돈이나 번식돈의 구입시 오제스키병 감염유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된다. 두번째의 경우 농장내 출입이 가능한 돼지 이외의 동물 즉, 개는 농장내로 감염된 태아 또는 폐사된 자돈을 물고 들어 올 수 있는 기계적 전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감염된 농장에서의 고무신발, 분뇨, 사료성분 등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농장에서 다른 농장에 이동시 전파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의 비발생농장으로의 전파는 비단 감염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역시 복잡하게 관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감염농장내 설치된 제반환경요소에 대한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표 2>로 요약하고자 한다.



<표 2> 오염농장에서 오염체들에 의한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

오제스키바이러스 감염가능조건	바이러스 오염시 감염가능시간
쇠로 된 철책, 쇠파이프	2주까지 생존
고무신발	4주까지 생존
옥수수, 펠렛사료, 골분	1주까지 생존
물에 젖은 옥수수	한달까지 생존가능
돼지분뇨	2~3일 생존
정화조, 분뇨저류지	1~2일 생존
오염된 용수	4일 정도 생존

이상의 제반요건을 요약하면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에서 구입된 돼지나 차량에 오염된 모든 물건 등 질병발생을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농장내 이 질병의 발생시 실시하여야 할 몇가지 요령을 요약하고자 한다.

5.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에서의 피해감소 대책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농장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장에서 돼지를 도태시까지 사육한 다음 전 돈사를 소독하는 방법이다. 비운 돈사는 철저히 소독후 1달 정도 방치기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모돈을 입식하여 질병의 연속적인 순환을 방지하는 과정이 된다. 실제 농장이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질병에 의한 피해가 심할 경우 쓸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돼지 오제스키병은 큰 경제적 손실을 주는 질병으로서 유산, 사산, 허약자돈, 자돈의 폐사 및 성돈의 폐염이 유발되는 관계로 이와같은 비용을 상쇄하는 방향으로서 참고하여 운영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방향은 오제스키병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양성돈의 검색 및 도태방법으로서 발생초기에 실시할 경우 감염되지 않은 다른 돼지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의 양성돼지는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농장내 질병전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돈사내 철저한 소독과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음성돈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약 30일 간격으로 재검사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농장내 오제스키병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의 방법은 발생이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낸 지역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한 피해의 감소이다. 1994년 4월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은 오제스키병의 만성적 발생농장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혈

청학적 검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은 농장내 정확한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제스키병 예방약은 야외접종시 야외감염돈과 예방약 전 종돈과의 감별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돼지오제스키병 예방 및 방역에 가장 곤란한 문제는 이 질병에 대한 발생사실을 은폐하는 농장의 경우 타 지역으로 모돈이나 자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며 이 결과 질병의 발생이 확장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초기 발생시 신속한 진단은 추후의 전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강조되어야겠다.

6. 맺는말

지난 수년간 비교적 잠잠하였던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 경영은 새로운 방역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비발생 양돈장의 경우 이 질병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한번 발생된 질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웅돈이나 번식돈의 구입시 철저한 검사와 주의를 병행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일단 오제스키병으로 짐작될 경우 조기 검진 및 도태는 이차적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간 사용될 예방약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예방약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역학검사와 질병발생의 피해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점에서 1995년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의 원년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